즉시 배포용: 2023년 11월 19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공중 보건 보호 및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 대응을 위한 법안에 서명

법안 S.2099C/A.5200B에 따라 매튜법을 제정하고 약물 검사 용품을 전문 의료진 또는 약사에게 배포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오피오이드 및 약물 남용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매튜법(Matthew's Law) 또는 법안 S.2099C/A.5200B에 따라, 펜타닐 검사 용품의 사용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해당 용품은 사고로 인한 약물 과다 사용의 가능성을 줄여 공중 보건을 강화하는 자원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가족들은 오피오이드 및 남용 사태로 큰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되는 아픔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약숙과 기타 지방 의료 제공자들은 남용으로 인한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검사 키트에 대한 기록적인 투자 확대와 이번 법안을 통해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이 생명을 살리는 검사 키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많은 지역에서 펜타닐 검사 키트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매튜법에 따라 검사 키트 접근성 확대라는 뉴욕주의 지속적인 노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와 뉴욕주 중독 서비스 지원청(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 OASAS) 모두 펜타닐과 자일라진 검사 키트, 날록손 공급 배부 서비스 제공자의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올해 초, OASAS는 개인과 서비스 제공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문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펜타닐 검사 키트 200만개, 자일라진 검사 키트 140만개, 날록손 키트 70,000개의 주문이 이루어졌습니다. 펜타닐 키트 873,000개, 자일라진 검사 키트 340,000개, 날록손 유닛 387,492개가 추가로 뉴욕주 보건부 자금지원을 받는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배포되었습니다.

매튜법에 따라 지역 약사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어 모든 뉴욕 주민을 보호하려는 이러한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2020년 11월 펜타닐 남용 사고로 사망한 Matthew Horan을 추모하는 의미로 이름지어졌습니다.

뉴욕주 중독 서비스 지원청 커미셔너인 Chinazo Cunningham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남용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키드 등의 중요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확대하는 것은 뉴욕주에서 남용으로 인한 사망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원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이러한 자원을 직접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남용으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인 James McDonald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물 남용 사태로 인해 너무 많은 뉴욕 주민과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 대중에게 약물 검사 키트를 제공하고 날록손과 같은 기타 가용한 자원을 제공하여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이 법안을 지지해주신 Matthew Horan의 가족을 비롯해 약물 남용으로 인한 무차별한 죽음과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Pete Harckham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전에 남용으로 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펜타닐 및 기타 불순물을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널리 배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 덕분에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우선 뉴욕의 모든 약국에 비치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매인 Matthew를 펜타닐로 잃었지만 새로운 법에 그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제정을 지원해주신 Kailey Horan에게 감사드립니다.”

약사인 John T. McDonald II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물 남용 사망의 증가는 공중 보건 위기이며 즉각적인 대응과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이번 법안은 펜타닐과 같은 불순물이 불법 약물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생명을 살립니다. 오피오이드 및 남용 사태는 계속 진행되어 더욱 위험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에 이러한 도구를 제공하고 가능한 많은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공중 보건 위기에서 뉴욕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5월 뉴욕주 보건부 산하 약물 사용자 보건청(Office of Drug User Health)은 주정부 자금 지원을 받은 Drug User Health Hubs에서 운영하는 네 개의 약물 검사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돌봄 이니셔티브는 사람들에게 복용하는 약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전하게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상담과 함께 결과를 알립니다. 프로그램 시행 첫 육 개월동안 채집한 샘플의 98 퍼센트가 펜타닐을 함유한 헤로인, 53 퍼센트카 자일라진을 함유한 약물이었습니다. 검사 프로그램은 새로운 약물이 불법 시작에 진입하면 해당 약물을 찾아내어 해당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경고합니다.

OASAS과 협력을 통해 뉴욕주는 화상으로 날록손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세션에서는 남용의 징후를 알아내고 날록손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법을 사람들에게 교육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 |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세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